

## 오륙도 칼럼



김 상 수

남구청 기획감사실장

전화벨이 울렸다. 남포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친구 녀석이다. “아, 상수야! 큰일났네이, 김영란법이 뭐가 시행되면 음식점이고 업체는 다 망할까. 우린 이제 우짜면 좋노.” 친구 녀석은 팔막한 안부 인사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탁월 불안감을 늘어놓다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물고 을 충격파에 대한 걱정

은 비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농어업인, 상공인 등 전국 곳곳에서 ‘김영란법’을 놓고 우려와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 김영란법 시행 초기 혼선 불가피

법 시행 초기 가족이나 일터는 지역경제에 끼칠 타격은 친구의 불면소리처럼 만만찮을 것이다. 또 공고해진 관행의 문화로 강한 저항도 불가피해 보인다. 각종 예로나 혼선으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생겨날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끼칠 심대한 부정적 여파에 앞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좀더 근원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쌍팔년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부패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올 초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를 나왔다. 또 전세계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했다. 2005년부터 11년간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의 평균 순위는 41위다.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조사에서 ‘공직사회는 부패한가’라는 질문에 일반국민 100명 중 58명이 ‘그렇다’고 답한데 반해 공무원은 3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직사회가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 하에 부패에 얼마나 둔감하고 관대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공직자는 ‘부패’라고 쓰고 ‘관행’이라고 읽은 꼴이다. 결국 이런 한국사회의 낮은 청렴도는 종국에는 대의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잡아먹는 결과로 표출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단순한 청탁금지법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고질병을 고치고 부패 후진국의 꼬리표를 떼어내 국가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뼈를 바꾸고 태를 발라내는 극약처방인 셈이다. 부패적결과 투명사회를 취지로 내세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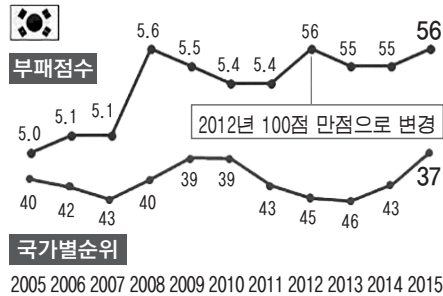
로 정착되면 국가의 품격이 달라진다. 국격이 오르면 대의신인도 상승과 함께 국가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에 따라 각 분야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이처럼 멀게는 국가존립의 문제인 것이다. 결코 근시안 적으로 접근하고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 뼈 아픈 법 제정 이유 먼저 살펴야

앞으로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부패적결 고백은 더욱 죄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고백을 권다한들 한쪽에서 끌어버리면 소나 말은 달아나고 말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가 부정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사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로 하지 않겠

###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한국부패지수



국가별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신선대

&lt;248&gt;

채 규 중



### ■임찬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6> 면접을 잘 보는 스피치 요령

## 단점 지적 받으면 변명 보다 수궁을

세상을 살면서 말을 가장 잘해야 할 순간 언제일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데 당락을 결정짓는 ‘면접’이 아닐까 생각한다. 면접 답변 요령은 백가지가 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질문에 따라 답변 시간을 조절하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와 같이 일반적인 질문을 묻는 질문은 30초 내외로 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인가요?’, ‘가장 큰 성취 경험은 무엇인가요?’ 등 자신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지를 담기 위해 1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3초’ 내에 답을 하되 바로 대답하지 말고 2초를 쉬고 말해야 한다. 바로 대답을 하면 면접관은 외은 답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질문에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한다고 느껴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처음부터 하나의 정답을 말하지 말자. 면접은 나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다.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중립적인 답변을 하는 편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가령 ‘신입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실성입니다. 그 이유는...”이라고 내 생각을 바로 이야기 한다면, 면접관은 마음 속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네, 신입직원으로서 중요한 자질은 청렴함, 책임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압박질문을 하면 인정하라.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나요?’ ‘자격증이 왜 없어요?’ 등 압박이 가해질 때 대부분은 당황해 변명하기 일쑤다. 이때 ‘성적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로 답변하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가장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네, 제가 성적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때문에 성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성해 입사를 위해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답변은 변명이 아닌 ‘이유’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면접은 면접관의 마음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요령을 활용하여 보자.

임찬수식스피치학원 원장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2016 부산교육청 ‘아름다운 인사’ 수기 공모 학부모 부문 최우수작

##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사

나는 여행사에서 일한다. 흔히 말하는 서비스직이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연변술이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지점에서 항상 최고의 예약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직원들이 비결을 묻기도 하지만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 내 별명은 ‘일주일’이다.

한 고객님께서 불어주신 별명이다. 한번 만나면 일주일동안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주신다. 어떤 사람들이든 첫 대면을 하는 순간에는 अच्छ히 나뉘는 다.

그럼 나는 그 어색함을 없애기라도 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그리고 웃는 얼굴과 상냥한 눈빛으로 고객을 바라본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첫 대면을 시작하면 보통의 경우는 상담하는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여행은 좋은 일이지 않은가. 행복한 순간을 계획하고 이야기 하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의미에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얼마전의 일이었다. 날씨 영향으로 비행기가 결항되어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하신 손님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실 날씨로 인한 결항은 항공사 잘못도 여행사 잘못도 아니

다. 안전을 위한 것이니. 하지만 손님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화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오셨다. 바이어를 만나지 못해 예약이 깨졌다면서 손해 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시면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시선을 피하며 자기일에만 몰두했다. 그 고객을 담당했던 직원은 출장중이었

다. 나는 별책 일어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면서 따로 마련된 VIP 고객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한참을 고객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고객의 상황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니 어느새 손님의 마음은 풀려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인사하는 직원은 나 밖에 없었으며, 지점장을 만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점장을 내게 나에 대한 청찬을 하셨다. 그리고 그 분은 이제 평생 나의 고객

이 되셨다. 알고보니 그 분은 기업체를 운영하시며, 1년에 한번씩 전직원 그리고 직원의 가족들까지 함께 여행을 다니시는 멋진 분이셨다. 그 때 나는 깨달았다. 인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눈을 마주하며 인사하는 것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구나.

아름 살 아들과 요즘 전쟁 중이다. 회사원으로서 잘하는지 몰라

도 엄마로서는 뺑뺑인 것 같다. 바쁜 아침시간에 늘 시간에 쫓겨가 아이를 다그치게 된다. 그래서 늘 아들과 나는 아침마다 뽀뽀통하다.

우선 서로의 눈을 보며 헤어짐의 인사를 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고객을 대하듯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가족끼리는 왜 이런 어색한지.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고마운 마음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인사하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함이 밀려온다. 출근하는 나도, 등교하는 아이도 하루를 활짝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사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인사인 듯 하다. 그리고 이 인사



함유희  
(대연동 주민·용소초 학부모)

### 복지관 소식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공연자, 관객이 어울려 함께 만드는 공감음악회를 29일(목) 오후 7시 야의무대에서 개최한다. 한편 (주)켄코선박운용에서 지난 6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76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남구지역 복지소외계층 및 저소득계층 발굴 및 지원에 사용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홀로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400여대를 대상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2016년 사랑의 겨울나기 행사’에 필요한 난방용품 등 후원을 기다린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부속건물에 필요한 물품(TV, 냉장고, 책상 및 사무실 집기비품 등) 후원을 기다린다. ☎626-6990

○...나사함발달장애인지역관은 지난 23일 (사)부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지역회에서 주최하는 ‘2016년도 제1회 부산시 지적발달장애인지역권리 주장대회’에 참가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는 기회를 가지는 대회다. ☎627-8521

## 주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607-4075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lt;2016. 9. 22. 기준&gt;

| 회사명         | 근무지 | 모집직종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임금조건      | 연락처           |
|-------------|-----|-----------------|------|-----------------------|-----------|---------------|
| 감만사회복지관     | 감만동 | 급식조리사           | 1    | 2016. 09. 20. ~10. 02 | 월급 151만원  | 051-634-3415  |
| 케이-리퍼온      | 용당동 | 급속도장원           | 1    | 2016. 09. 20. ~10. 05 | 월급 180만원  | 070-7760-7617 |
| 인아트 환경디자인   | 대연동 | 건축설계사           | 2    | 2016. 09. 20. ~10. 17 | 연봉 2500만원 | 051-610-1404  |
| 썬미화산업       | 대연동 | 총무 및 일반사무원      | 1    | 2016. 09. 19. ~10. 18 | 월급 150만원  | 051-501-8945  |
| ㈜GS리테일 영남본부 | 용호동 | 대형마트 판매원        | 9    | 2016. 09. 19. ~채용시    | 시급 6050원  | 051-860-1949  |
| (자)보수산업     | 용호동 | 대형트럭 및 범프트럭 운전원 | 1    | 2016. 09. 19. ~채용시    | 월급 200만원  | 051-682-1236  |
| 김성미소아청소년과의원 | 용호동 | 방사선사            | 1    | 2016. 09. 19. ~채용시    | 연봉 2400만원 | 051-714-2046  |
| 지성도서        | 대연동 | 사서              | 2    | 2016. 09. 21. ~채용시    | 연봉 1700만원 | 051-818-3800  |
| 한솔어린이집      | 감만동 | 보육교사            | 1    | 2016. 09. 21. ~채용시    | 월급 150만원  | 051-634-8286  |
| ㈜문일T&S      | 문현동 | 배송납품운전원         | 1    | 2016. 09. 21. ~채용시    | 연봉 2000만원 | 051-465-5000  |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나의 생각

## 데이트 폭력은 범죄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상해 등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는

조차 알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를 당해도 112신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왜곡된 마음에서 비롯되어 벌어지는 일이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것을

까리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7월31일 집중단속 결과 데이트 폭력 신고는 5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20명이 구속, 4852명

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는 5172명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24% 가량 늘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오던 연인 간 폭력이 더 큰 피해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이를 차단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본인이 이러한 피해경험이 있거나 혹은 주위에서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공력에 알려야 한다.

112전화신고, 인터넷, 스마트폰 앱 혹은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피해상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홍지명 (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산타라가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lt;2016. 10.&gt;

| 구분  | 산악회       | 산행일자(요일)           | 산행장소       | 연락처           |
|-----|-----------|--------------------|------------|---------------|
| 대연동 | 연포산악회     | 10/9(일)            | 충남 칠갑산     | 010-3832-5971 |
|     | 백호산악회     | 10/12(수)           | 사천 갑산      | 010-5621-4007 |
|     | 한울림산악회    | 10/9(일)            | 충북 소백산     | 010-9328-6091 |
|     | 대오산우회     | 10/9(일)            | 미정         | 010-8557-0479 |
|     | 약천산악회     | 10/19(수)           | 포항 비화산     | 010-4655-4370 |
| 용호동 | 금강산악회     | 10/2(일)            | 천관산        | 010-3865-9051 |
|     | 용호산악회     | 10/13(목)~17(월)     | 중국 계림      | 010-2593-0361 |
|     | 여명산악회     | 10/2(일)            | 연양 신불산     | 010-3554-4392 |
|     | 용신산악회     | 10/9(일)            | 전남 장흥 천관산  | 010-4657-7051 |
|     | 여남산악회     | 10/9(일)            | 상주 갑장산     | 010-4553-6615 |
| 문현동 | 신선산악회     | 10/9(일)            | 포항 보경사 계곡  | 010-6520-0167 |
|     | 청산산악회     | 10/2(일)            | 충북 북바위산    | 010-8008-2087 |
|     | 해물산악회     | 10/16(일)           | 경북 구미 금오산  | 010-3580-7558 |
|     | 21세기산악회   | 10/9(일)            | 포항 오저지 들레길 | 010-6555-6940 |
|     | 용당동 문화산악회 | 10/23(일)           | 전북 고창 선운산  | 010-2077-5076 |
| 감만동 | 글로벌산악회    | 10/16(일)           | 포항 오저지 들레길 | 010-8287-1192 |
|     | 우일산악회     | 10/2(일)            | 전북 진안 구봉산  | 010-3557-2847 |
|     | 우암산악회     | 10/15(토)~16(일)(무박) | 설악산        | 010-7520-6666 |
| 문현동 | 문현2동산악회   | 10/9(일)            | 새마금        | 010-3178-3065 |
|     | 원부리산악회    | 10/16(일)           | 밀양 백운산     | 010-4564-7769 |
|     | 산누리산악회    | 10/2(일)            | 월출산 산성대    | 010-4035-3432 |
|     | 한마름산악회    | 10/16(일)           | 창녕 화왕산     | 010-8798-9070 |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해드립니다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상담으로 일정금액(보유재산 5억, 종합소득(매출액) 5천만원)이상인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확인 후 상담신청)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대면 상담

【우리 구 마을세무사】  
○대연동, 감만동, 용당동, 우암동 ▶ 변현순 세무사(631-9998)  
▶ 손무식 세무사(316-0636)

○용호동 ▶ 방사진 세무사(466-9080)  
○문현동 ▶ 이영근 세무사(631-9999)  
【문 의】 남구청 세무1과 ☎607-4182~4185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7월 : 주택부(연세액의 1/2), 건축물부, 선박  
-9월 : 주택부(연세액의 1/2), 토지부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 2배  
-7월 : 주택1배, 건물1배 -9월 : 주택1배, 토지1배  
◆납부 기간 : 2016. 9. 16. ~9. 30. (9월분 재산세)  
◆재산세 문의처  
대연1·3동 ☎607-4206 대연4·5·6동 ☎607-4201 감만동 ☎607-4201  
용호동 ☎607-4204 우암동 ☎607-4202 용당동·문현동 ☎607-4205